

# 캐나다 유료방송시장 현황: CRTC 2014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권 용 재\*

## 1. 개요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sup>1)</sup>는 2014년 9월 4일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14(이하 CMR)의 Part I을 발간했다. CMR은 방송통신시장 연차보고서로서 캐나다의 TV, 라디오, 방송 플랫폼 등의 방송 분야와, 전화, 인터넷, 데이터/로밍, 전용회선, 이동통신 등의 유/무선 통신 분야의 가장 포괄적인 현황과 전망을 보고하고 있다. CRTC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방송통신 분야의 창을 제공하고 방송통신 규제정책과 관련 이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공개적인 토론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RTC 방송통신 규제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캐나다가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통신 시스템의 중심에 서기 위한 자가진단의 목적으로 매년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sup>2)</sup>

CRTC는 금년 CMR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간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4일 발간된 첫 부분(Part I)은 방송 부문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는 통신 부문으로 9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355, yjkwon@kisdi.re.kr

1)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2) 방송통신위원회(2013), 권용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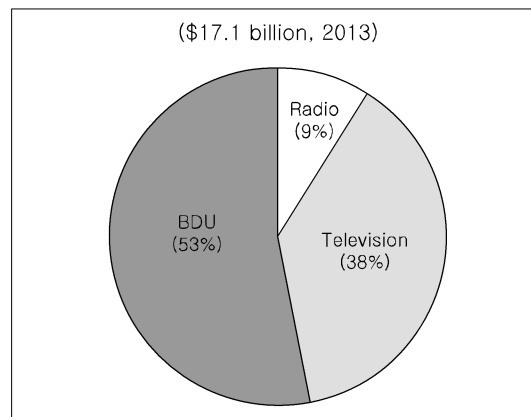
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마지막 부분은 해외 주요국들과의 비교, 캐나다 소비자들의 방송통신상품에 대한 지출 등을 포함한 전체 리포트로써 10월 중순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본고는 9월 4일 발간된 CMR 2014 Part 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캐나다 유료방송시장의 매출액, 가입자 수, 성장률, 점유율, 보급률과 같은 시장성과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검토하여 캐나다 유료방송시장의 개괄적인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캐나다 방송시장 개황

2013년 캐나다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은 171억(2012년 168억 달러)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유료방송 플랫폼(BDU)<sup>3)</sup> 매출액이 5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텔레비전 부문이 38%, 라디오 부문은 9% 정도였다. 전체 매출액 171억 달러 중 상위 5대 사업자(BCE, Cogeco, Quebecor Media, Rogers Communications, Shaw Communications)가 81%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31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3년 캐나다 방송시장 매출 점유율



자료: CRTC(2014)

3) BDU: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s

〈표 1〉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캐나다 방송시장 매출액을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라디오 부문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16억 2,300만 달러였는데 이 중 FM라디오 매출액이 13억 2,800만 달러, AM라디오 매출액이 2억 9,500만 달러였다. AM라디오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은 -1.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FM라디오의 연평균성장률도 1%에 그쳤다. 텔레비전 부문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0.2% 감소하여 64억 9,9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연평균성장률은 4.4%에 달했다. 캐나다의 국영방송사인 CBC의 매출액은 2010년 14.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성장률이 매년 하락하여 2013년에는 전년대비 8.7% 하락한 4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민영방송사 역시 2012년 -5%, 2013년 -4.6%의 저조한 성장을 보이며 2013년 19억 4,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반면, 2013년 PPV, VOD, 유료, 전문 서비스 등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1% 성장하여 40억 9,100만 달러에 달했고 연평균 성장률도 7.9%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유료방송 플랫폼(BDU) 매출액은 89억 9,000만 달러였고 연평균성장률은 5.9%를 기록했으나, 2010년 9.1%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서서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2.7%까지 떨어져 성장속도가 차츰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성/무선케이블 매출은 2010년 8.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차츰 감소하여, 201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0.8%)을 기록했다.

〈표 1〉 방송시장 매출액(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라디오	AM	306	307	311	306	295	-1.9%
	성장률	-7.4	0.4	1.2	-1.6	-3.7	
	FM	1,201	1,245	1,302	1,314	1,328	1.0%
	성장률	-4.7	3.6	4.6	0.9	1.1	
	라디오 총계	1,508	1,552	1,613	1,620	1,623	0.4%
	성장률	-5.4	2.9	3.9	0.4	0.2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텔레비전	CBC	392	450	500	508	464	5.4%
	성장률	-4.9	14.8	11.1	1.6	-8.7	
	민영방송사	1,971	2,142	2,144	2,038	1,944	-1.2%
	성장률	-7.8	8.7	0.1	-5	-4.6	
	유료, PPV, VOD, 전문 서비스	3,121	3,475	3,748	3,968	4,091	7.9%
	성장률	6.5	11.3	7.9	5.9	3.1	
	텔레비전 총계	5,484	6,067	6,392	6,514	6,499	4.4%
	성장률	0.1	10.6	5.4	1.9	-0.2	
BDU (유료방송 플랫폼)	케이블/IPTV	5,123	5,610	5,927	6,068	6,321	6.2%
	성장률	7.6	9.5	5.7	2.4	4.2	
	위성/무선케이블	2,196	2,385	2,532	2,492	2,472	5.2%
	성장률	7.8	8.6	6.2	-1.6	-0.8	
	기타 비보고 BDU	123	134	127	196	196	5.8%
	성장률	6.1	9.6	-5.6	54.8	0	
	BDU 총계	7,441	8,130	8,586	8,757	8,990	5.9%
	성장률	7.6	9.3	5.6	2.0	2.7	
방송 총계		14,432	15,749	16,591	16,891	17,111	4.7%
성장률		3.2	9.1	5.3	1.8	1.3	

주: 1) CBC는 의회 보조금(공적 자금)을 제외한 광고와 기타 상업적 사업 매출액임

2) 무선케이블은 다지점 분배 서비스 MDS(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로 마이크 로파를 사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전송함

출처: CRTC(2014)

### 3. 캐나다 유료방송시장 현황

2013년 캐나다에는 케이블, IPTV, 위성/무선케이블(MDS)<sup>4)</sup>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

4) CRTC의 주파수 정책의 일환으로 무선케이블에 사용되던 대역(2,598MHz~2,686MHz)은 브로드밴드 라디오 서비스가 사용하게 되었고, 2013년 9월 1일부로 무선케이블(MDS)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캐나다의 유료방송시장은 5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케이블 설비와 위성을 이용하여 전체 매출액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사업자의 2013년 매출액은 약 53억 9,500만 달러로 전체 유료방송 플랫폼 매출액의 6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9년 66.8%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위성/무선케이블사업자는 20% 후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2년과 2013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7.5%로 점유율이 감소했다. 이와 대비해 IPTV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2%로 시

〈표 2〉 캐나다 방송 플랫폼별 매출액 추이(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케이블	4,971.3	5,402.2	5,604.7	5,472.9	5,395.0	2.1%
점유율	66.8	66.5	65.1	62.6	60.0	.
성장률	6.8	8.7	3.7	-2.2	-1.6	.
IPTV	151.4	207.8	322.3	585.4	926.1	57.3%
점유율	2.0	2.6	3.8	6.7	10.3	.
성장률	39.8	37.2	55.1	81.6	58.2	.
위성/무선케이블	2,195.6	2,385.3	2,532.1	2,492.4	2,472.2	3.0%
점유율	29.5	29.3	29.5	28.5	27.5	.
성장률	7.8	8.6	6.2	-1.6	-0.8	.
비보고 사업자	122.6	134.4	126.8	196.3	196.3	12.5%
점유율	1.6	1.7	1.5	2.2	2.2	.
성장률	6.1	12.0	-5.6	0	0	.
플랫폼 합계	7,440.9	8,129.7	8,585.8	8,757.0	8,989.6	4.8%
성장률	7.6	9.3	5.6	2.0	2.7	.

주: 1) 각 연도는 9/1~8/31 1년 기준임

2) 비보고 사업자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CRTC(2014), 재구성

작한 점유율은 2013년 9억 2,6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IPTV는 매년 40~5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12년에는 무려 81.6%의 매출액 성장을 기록하여 2009~13년 57.3%의 연평균성장률을 달성했다.

캐나다의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수 추이 역시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케이블 가입자 수는 743만 600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62.3%)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대비 약 25만 명 감소한 수치로 -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8년 70%<sup>5)</sup>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케이블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13년 -1.2%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해 캐나다의 케이블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음을

<표 3> 캐나다 방송시장의 플랫폼별 가입자 수 추이(2009~2013)

(단위: 천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케이블	7,782.7	7,874.4	7,858.3	7,682.2	7,430.6	-1.2%
점유율	69.5	68.3	66.3	64.4	62.3	.
성장률	1.2	1.2	-0.2	-2.2	-3.3	.
IPTV	311.4	419.6	657.3	1,002.40	1,385.1	45.2%
점유율	2.8	3.6	5.6	8.4	11.6	.
성장률	38.4	34.7	56.6	52.5	38.2	.
위성/무선케이블	2,760.9	2,862.1	2,877.4	2,825.7	2,691.2	-0.6%
점유율	24.7	24.8	24.4	23.7	22.6	.
성장률	2.3	3.7	0.5	-1.8	-4.8	.
비보고 사업자	345.1	369.7	412.7	412.4	412.4	4.6%
점유율	3.1	3.2	3.5	3.5	3.5	.
성장률	-1.5	7.1	11.6	-0.1	0.0	.
플랫폼 합계	11,220.0	11,525.7	11,809.6	11,926.8	11,919.2	1.6%
성장률	2.1	2.9	2.5	1.0	-0.1	.

주: 1) 각 연도의 8월 31일 기준임

2) 비보고 사업자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CRTC(2014), 재구성

5) CRTC(2013)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2013년 22.6%)을 차지하고 있는 위성/무선케이블 가입자 수는 2013년 약 269만 1,200 명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고 2008~12년 연평균성장률은 -0.6%에 불과했다. 반면 IPTV는 지난 5년간 45.2%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2008년 31만 1,4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를 2013년 138만 명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이에 2008년 2.8%였던 점유율은 2013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11.6%를 기록했다. 2013년 캐나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는 약 1,191만 9,200 명으로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표 4〉는 캐나다 방송시장의 매출액 기준 5대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기준 1위 사업자는 Shaw로 288만 3천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

〈표 4〉 캐나다 5대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자 수 추이(2010~2014)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Rogers	2,296	2,303	2,276	2,189	2,107	-2.1
성장률	-0.7	0.3	-1.2	-3.8	-3.7	
Shaw	3,232	2,219	3,168	3,044	2,883	-2.8
성장률	1.9	-0.4	-1.6	-3.9	-5.3	
Videotron	1,786	1,809	1,854	1,849	1,811	0.3
성장률	3.3	1.3	2.5	-0.3	-2.1	
Cogeco	874	881	873	853	816	-1.7
성장률	0.7	0.8	-0.8	-2.4	-4.3	
BCE	1,969	2,043	2,112	2,170	2,307	4.0
성장률	5.6	3.8	3.3	2.8	6.3	
합계	10,156	10,255	10,283	10,105	9,924	-0.6
성장률	2.1	1.0	0.3	-1.7	-1.8	
점유율	89.4	87.9	86.6	84.8	-	

주: 1) Rogers, Videotron, BCE는 각 연도 3월 31일 기준, Shaw와 Cogeco는 2월 28일 기준  
 자료: CRTC(2014)

였으나 이는 320만 명 이상이던 2010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연평균 성장률도 -2.8%를 기록했다. BCE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2010~14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014년에는 5대 플랫폼 사업자 가입자 수 합계가 처음으로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가입자 수 측면에서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13년 1.6%의 낮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에서 5대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캐나다의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중은 84.9%를 기록하여 2012년 85.6%에 비해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13년 연평균성장률은 0.6%를 기록해 지난 5년간 캐나다의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캐나다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중(2009~2013)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중	83.0	84.5	85.8	85.6	84.9	0.6

주: 각 연도 8월 31일 기준

자료: CRTC(2014)

〈표 6〉은 캐나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월간 ARPU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월간 ARPU는 가입자당 매출액(monthly revenues per subscriber)으로써 연간 매출액을 가입자 수로 나눈 후 12로 나누어 계산했는데 여기서 가입자 수는 연초 가입자 수 와 연말 가입자 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2013년 기준 위성/무선케이블의 ARPU는 74.96달러를 기록하여 3개 플랫폼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케이블은 59.48달러로 가장 낮았다. 케이블과 위성/무선케이블이 2009~13년 2.7%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했고 IPTV는 8.3%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였다. 2009년 47.05달러였던 IPTV의 ARPU는 5년 만에 20불 가까이 증가해 2013년 64.65달러를 기록하며 케이블을 앞질렀다.



〈표 6〉 캐나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월간 ARPU 추이(2009~2013)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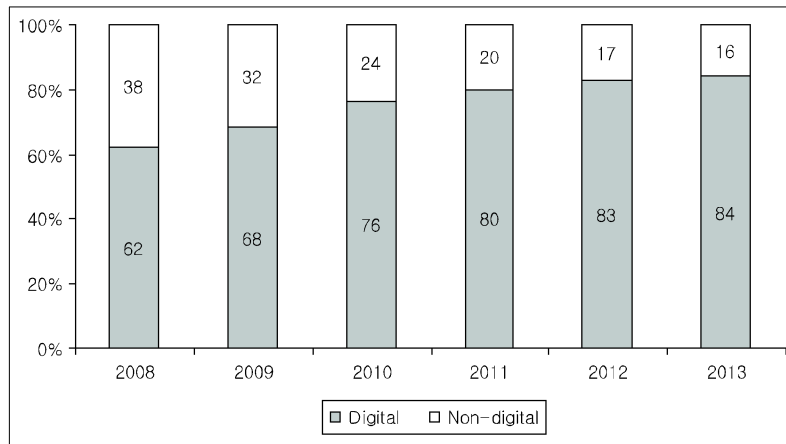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케이블	53.54	57.51	59.36	58.77	59.48	2.7
성장률	5.1	7.4	3.2	-1.0	1.2	
IPTV	47.05	47.38	49.88	58.78	64.65	8.3
성장률	1.9	0.7	5.3	17.8	10.0	
위성/무선케이블	67.02	70.70	73.53	72.84	74.69	2.7
성장률	5.3	5.5	4.0	-0.9	2.5	
보고 사업자 합계	56.91	60.54	62.51	62.27	63.66	2.9
성장률	5.0	6.6	3.3	-0.4	2.2	

주: 월간 가입자당 매출액

자료: CRTC(2014)

2013년 캐나다 유료방송 가입자중 디지털 상품 가입자의 비중은 84%를 기록했다. 캐나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율은 2008년 62%를 기록한 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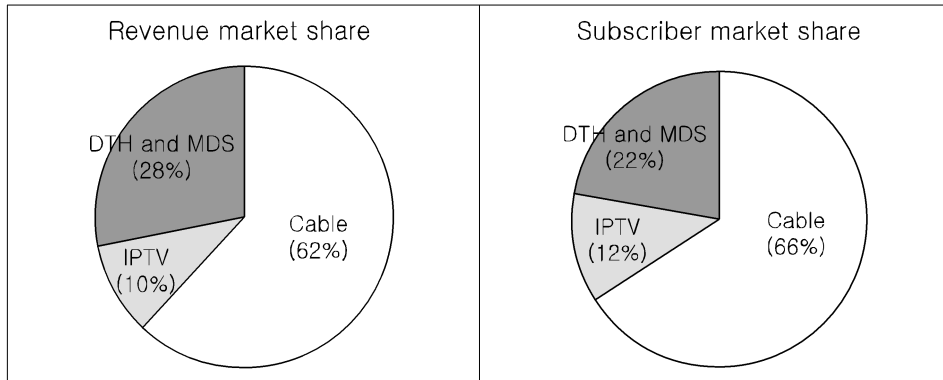
〔그림 2〕 캐나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율



자료: CRTC(2014)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은 케이블이었다. 그 뒤로 위성방송이 1990년대 중반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했고 IPTV는 비교적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는 케이블, 위성과 IPTV 3개 플랫폼 모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인구가 적은 비도심 지역에서는 주로 위성이나 케이블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 지역 가구의 약 49%가 위성과 케이블 중 선택할 수 있었고 51%는 대체적으로 위성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 매출액 중 케이블이 6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IPTV는 1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3년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역시 케이블이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위성과 무선케이블(MDS)이 22%, IPTV는 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림 3] 유료방송 플랫폼별 매출액/가입자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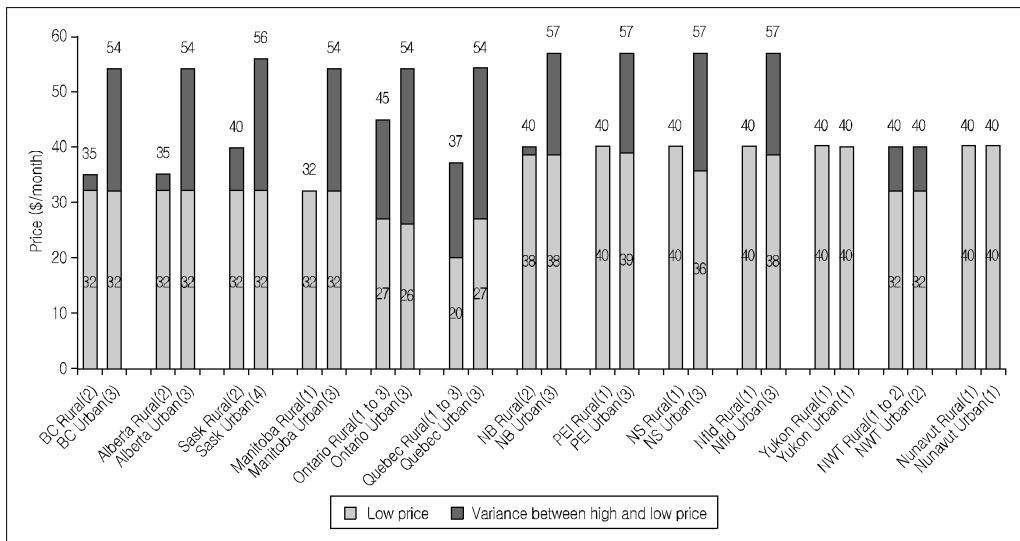


자료: CRTC(2014)

CRTC 유료방송 요금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과 채널수가 유료방송 제공 사업자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캐나다 21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들은 기본 서비스(basic television service)를 시청하기 위해 월 최소 26~40달러에서 최대 54~57달러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Ottawa, Gatineau, Montreal, Quebec 거주자들이

가장 낮은 26~27달러를 지불했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 채널수는 69~124개로 지역과 제공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 지역에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 채널수는 이보다 적었고 요금도 최소 월 20~40달러에서 최대 32~57달러로 대체적으로 주요 도시의 요금보다 낮았다. 예를 들어, 퀘벡주 도심 지역에서는 기본 서비스 요금이 20~37 달러였고 비도심 지역에서는 27~54달러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2013년 주(province)별 유료방송 기본 서비스 도심 vs. 비도심 요금 비교



주: 각 주별로 왼쪽 바가 비도심(Rural) 지역 요금, 오른쪽 바는 도심(Urban) 지역 요금  
 자료: CRTC(2014)

## 4. 결 어

본고는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가 지난 9월 4일 발간한 2014년도 연차보고서 첫 부분(Part 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캐나다 유료방송시장의 매출액과 성장률, 가입자 수, ARPU, 요금 등 주로 시장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하여 그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013년 캐나다에는 케이블, IPTV, 위성/무선케이블(MDS)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같은 해 캐나다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171억 달러 중, 유료방송 플랫폼이 53%를 벌어들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 매출액 중 5대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6%였다.

캐나다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더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블과 위성은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 모두에서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수는 2009~13년 연평균성장률 1.6%를 기록하는 등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내 유료방송 가입가구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6%에 그쳐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OTT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규서비스의 등장도 전통적인 유료방송 플랫폼의 더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신규 서비스인 IPTV는 매출액, 가입자 수, ARPU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매출액 기준 처음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57.3%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했고 같은 해 가입자 수가 138만 명을 넘어서 1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IPTV의 ARPU 역시 2013년 64.65달러를 기록하며 케이블을 추월했다.

당분간 IPTV의 빠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런 트렌드가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케이블이나 위성 등 기존 플랫폼들을 위협하며 시장을 잠식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권용재 (2014), “캐나다 방송통신시장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2013),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CRTC (2013).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13”.
- \_\_\_\_\_ (2014).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14”.